



부활 제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길

예전에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른들(부모님)에게 바라는 것 혹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게 있다면 그냥 사주세요, 공부하지 않는다고 때리지 마세요, 일기 보지 마세요, 아빠도 성당 같이 나와 주세요, 술 먹고 장난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주무시면 공부할 의욕이 없어져요, 우리한테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왜 고치지 않나요?...”(초등학생들과 달리 겨우 얻어 낸 답들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른’에 대해, 어른의 역할에 대해 또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좋은 본이 되는 것, 오늘 복음의 표현처럼 길이 되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확고히 말씀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큰 어른이십니다.

자녀들은 단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사람이 가야할 길,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을 곧게 똑바로 걸어가는 본을 보여 주어야 하는 부모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걸어간 길을 거의 같이 따라 걷게 마련이라 그 책임이 더 큽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할 때, 그 뒤를 따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자체이시지만, 우리들 역시 원하는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겐 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인 동시에 자녀들의 길이기도하고 후배 동료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 예비자들의 길이기도 하고 새 영세자들의 길이기도 하고 아직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 걸어서 우리를 길이라 여기고 따르는 이들이 우리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송재훈 라파엘 신부 | 교현주임 겸 거제지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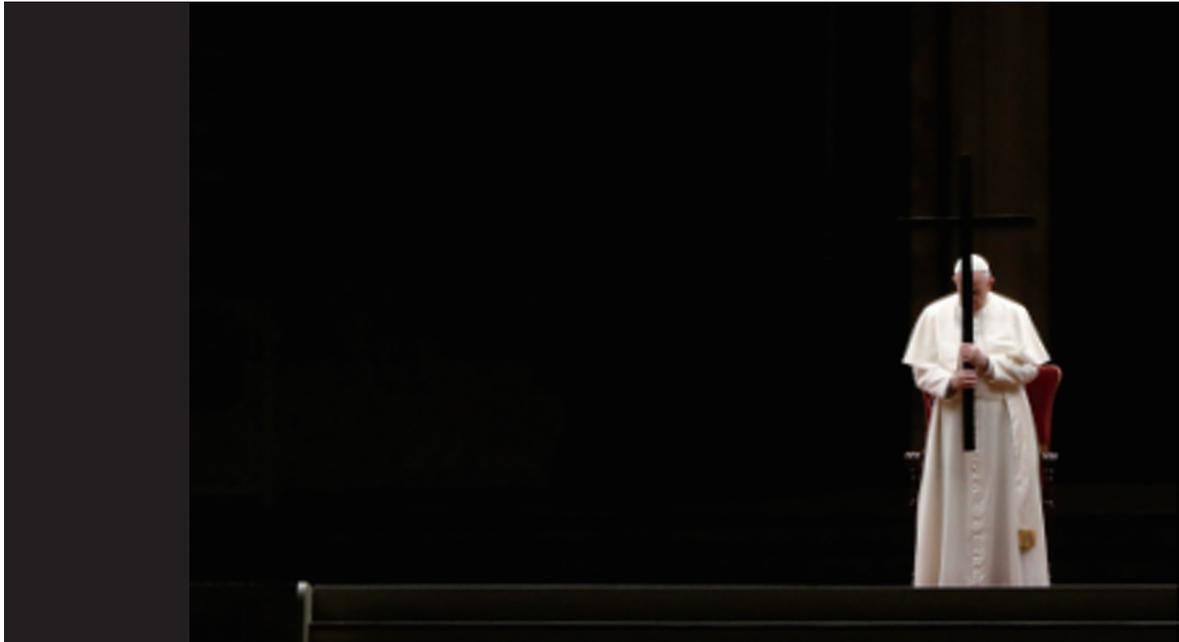


제 1 독 서	사도 6,1-7
화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 서	1베드 2,4-9
복 음	요한 14,1-12

주일 진레

교황님의 영명 축일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4월 23일은 순교자 성 그레고리오 기념일이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교황님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세례명이 됩니다. 교황님의 이름인 ‘호르헤’는 4월 23일 성인인 순교자 성 그레고리오의 스페인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이 교황님의 영명 축일이 됩니다.

이번 교황님의 영명 축일은 특별히 ‘사랑과 배려의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교황님께서서는 전세계를 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의료품과 의료기기들을 기부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영명 축일에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필요한 의료 물품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황님의 수호 성인인 순교자 성 그레고리오는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순교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신앙의 후손들은 그레고리오 성인을 ‘계절스러운 사람을 표상하는 용을 이김으로써 십자가를 지키고, 악을 이기는 신앙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교황청 의료 담당 콘라드 크라에브스키 추기경은 “교황님께서서는 당신의 아주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이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상징이십니다”라고 교황님의 ‘사랑과 배려의 사목’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며, 이는 당신 사목의 우선적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사목적 염원이 당신의 영명 축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당신의 수호 성인을 따라 ‘세상의 악을 이기는 신앙의 상징’이십니다. 몸소 ‘생명과 희망의 강렬한 말씀이 담긴 부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일 립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순구(요한) 신부
2009년 5월 17일



교구장 동정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미사

일시: 5월 17일(주일)

장소: 광주 임동주교좌성당

교구/본당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5월 23일부터)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수도회

나자렛애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이주노동자 후원금 전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구 내 이주노동자들을 돕고자 교구 사제단이 모금을 진행하였다. 상여금 1회분을 모으기로 하여 총 62,600,000을 모았다. 4월 24일 교구장 배기현 주교가 사제들을 대표하여 이주민 사목 담당 김종원 신부에게 전달하였다.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품격 본도여행사
순례 www.bundotour.com

5월 18일	프랑스 성모성지 순례	13일	409만원
6월 19일	알프스 수도원 순례	12일	489만원

ASIANA AIRLINES 1
KOREAN AIR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 (팔용동)
구용출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SM 수맥홍(홍)침대
주부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키친,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본도여행사 02.852.8525



저는 믿습니다(Credo)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 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 인류가 멈추어 하느님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알게 한 코로나19 덕분에, 올해 주님 부활은 그

야말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저를 다른 고백 앞에 세웁니다. 엠룰시토수도회의 전 총장님이셨던 베르나르도 올리베라 아빠스님께서 수도회의 모든 수사 수녀들에게 써 보낸 '저는 믿습니다'(Credo) 하는 고백의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빛 속에서 생생한 기쁨과 희망을 걸어 올리는 나날들이 되시길 빌며, 그 가운데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의 내적 삶과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관상합니다.
- *저는 성화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마리아적이며 교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신화(神化)시키시고 하느님과 한 영이 되게 하는 성령을 믿습니다.
- *저는 믿으셨기에 복되신 마리아를 믿습니다.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삶의 모범, 예수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일치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믿습니다.
-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구원의 효과적인 표지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또 서로 형제임을 느끼는 교회를 믿습니다.
- *저는 수도공동체를 믿습니다. 기도의 장(場), 우정, 자비와 섬김 그리고 봉사의 장(場), 기쁨과 용서의 장(場)으로 써, 약속되고 희망하는 하느님 나라를 선취하는 수도공동체를 믿습니다.
- *저는 인간 삶의 관상적 차원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대화에로 불리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관상적인 사람을 믿습니다.
- *저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습니다. 전례 안에서, 거룩한 독서의 대화 안에서, 권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마음의 비밀 안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습니다.
- *저는 미사성제 곧 잔치, 희생, 기념이자 현존인 미사성제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삶, 수도승적이고 관상적인 삶의 원천이자 정점인 미사성제를 믿습니다.
- *저는 가난과 복음적 단순함을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며 소비적, 쾌락적, 자기만족적인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를 관상하게 하는 효과적인 길인 가난과 복음적 단순함을 믿습니다.
- *저는 실패, 아픔 그리고 죽음을 믿습니다. 기쁨과 생명으로 가는데 필요한 순간들이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패, 아픔, 죽음을 믿습니다.
-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